임가공수익 환수조치 재고건의
정유사, 경영개선노력 인정해야

정유업계는 정부가 지난 86년도 油價정산때 정유사의 원유임가공수출수익 전액을 석유사업기금으로 환수한 조치에 대해 이는 국내석유류수급과는 별도로 정유사들이 창의적 노력과 경영개선책의 일환으로 실현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재고하여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대한석유협회는 최근 관계당국에 제출한 「86년도 임가공수익 환수조치에 대한 재고건의」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의 일부 수출전용 정유공장들과는 달리 두차례의 석유위기 이후 석유수요의 증가 추세 둔화 내지 일부유종의 수요감퇴에 따른 국내정제시설의 유휴화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원유임가공수출을 추진하여 온 것이라고 밝히고, 원유임가공수출은 국제석유시장의 상황에 따라 정유사가 신규시장을 개척하여 이루어지는 특수형태의 거래로서 국내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수공급용 석유정제와는 별도의 부수적인 사업부문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유협회는 또한 국내정유사의 원유임가공수출은 잉여정제시설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정제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정비성격의 제조경비등은 원유임가공사업과는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고, 임가공사업에 따라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수도·광열비 및 첨가제비등 변동성비용에 불과하므로 고정성비용을 임가공사업에 부담시킬 경우 내수에 기반을 두고 변동비만 회수하는 임가공수출사업은 경제성이 소멸되어 사업자체의 영위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석유협회는 또한 경제기획원의 원가검토요령은 기업의 기술혁신, 경영합리화등 사업자의 노력에 의한 현저한 원가절감효과는 사업자에게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 정유사의 잉여정제시설을 활용한 원유임가공수출사업의 수익은 국내수급과 무관하게 업계의 창의적 노력과 경영합리화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석유사업기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原單位, 2001년까지 33% 감축
에너지절약종합계획

정부는 에너지절약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오는 2001년까지 에너지절약의 총량경제지표인 에너지원단위를 86년대비 33% 감축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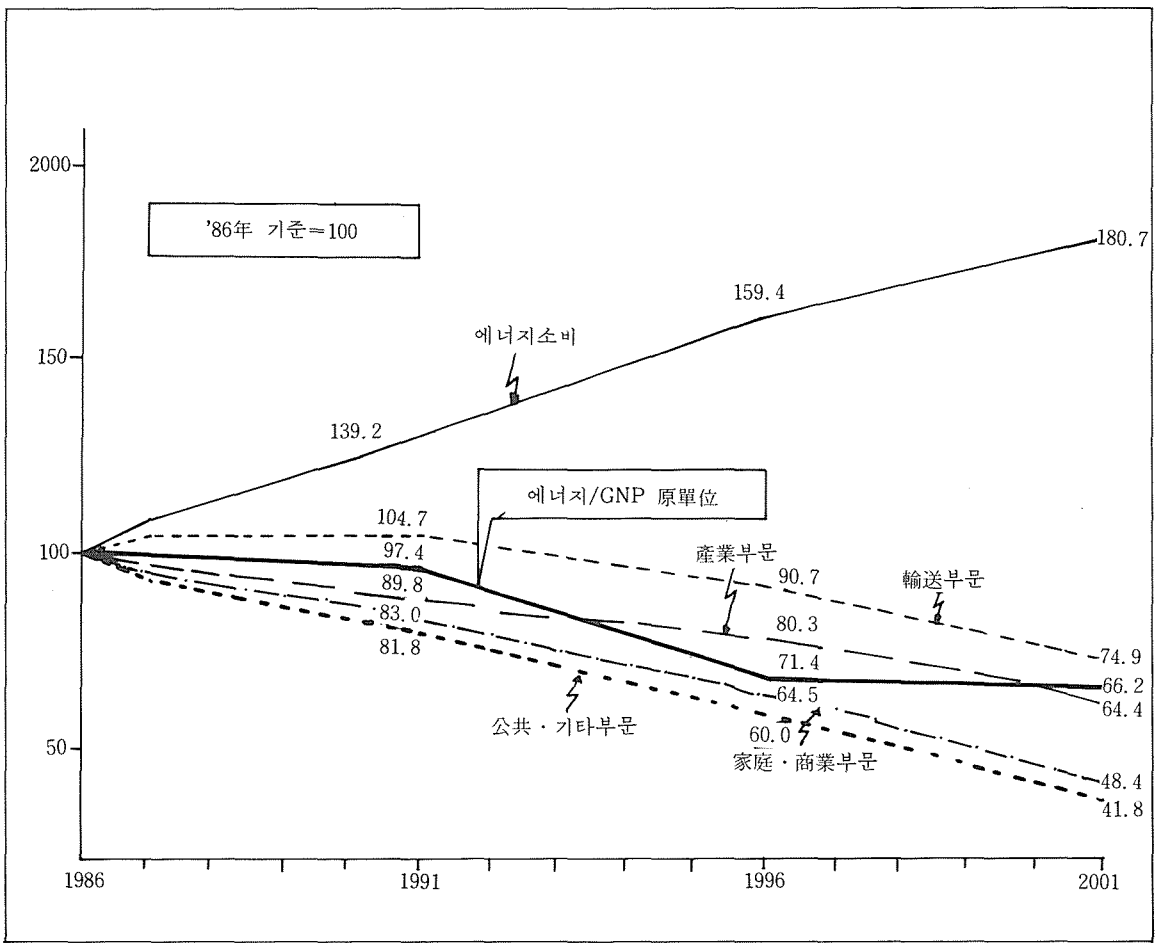
동력자원부가 확정 발표한 에너지절약 종합계획(1987~2001년)에 따르면, 에너지수요부문별 에너지절약노력과 에너지절약형 高부가가치 산업구조 접근으로 국민총생산에 대한 에너지투입비중인 에너지원단위를 86년 대비 91년까지 2.6%, 96년까지 28.6%, 2001년까지 33.8% 감축시켜 나가기로 했다.

부문별 에너지원단위 감축목표를 보면, 산업부문에서는 부가가치의 향상, 제조업의 원단위 감소, 에너지低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유도로 오는 2001년까지 36.6% 감축하고, 가정·상업부문에서는 건축물의 단열확대, 에너지절약형 건물건축, 건물의 유지관리표준화에 의한 에너지절약등을 통해 오는 2001년까지 51.6% 감축시키며, 수송부문에서는 연료경제의 향상, 수송체계의 합리적 개선으로 오는 2001 년까지 25.1% 감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자금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에너지절약투자를 유도하고,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에너지 多소비부문에 대한 에너지 이용합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관리진단 및 기술지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80년대의 에너지절약결과를 보면, 82년부터 86년까지 GNP증가율은 8.6%인데 비해 에너지소비증가율은 6.1%로 둔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원단위는 80년 대비 86년까지 12.4% 감소했다.

에너지 原單位 減縮目標(1987~2001年)



사라와크유전 생산분배 계약
三星·油公과 페트로나스社

三星物産은 지난 7월 2일 말레이지아 현지에서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나스社와 사라와크 SK-7광구 유전개발에 따른 생산분배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사라와크광구에서 원유가 생산될 경우, 말레이지아 페트로나스社와 공동사업자인 三星物産, 油公, 臺湾의 OPIC社, 美國 피닉스社 간의 생산분배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른 이익분배는 말레이지아측과 공동사업자가 하루 1만배럴 생산까지는 50대50, 2만배럴까지는 60대40, 2만배럴이상은 70대30이 되며, 공동사업자는 총생산량의 10%를 말레이지아측에 광구사용료로 지불토록 되어 있다.

공동사업자는 올해부터 91년까지 5천2백70만달러를 투입, 유전개발에 들어가게 되는데 三星物産과 油公이 35%, 臺湾 OPIC社 40%, 美國 피닉스社가 25%씩 지분을 갖고 있다.

사라와크유전은 수심이 30~75미터의 해양지역으로 2억2천만배럴의 석유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개 도시가스회사에
356억원 지원

정부는 京仁지역의 7개 도시가스회사들의 재무구조개선을 돕기 위해 올해안에 석유사업기금에서 3백56억4천5백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이는 도시가스회사들이 공급만 건설등 사업초기의 막대한 시설투자로 많은 차입금을 사용, 재무구조가 악화되었기 때

석유제품 품질검사수수료 징수
정유사 연간 17억원 수수료 부담

동력자원부는 내년부터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때 국내정유업자로부터 검사수수료를 징수하기로 하고, 이를 지난 6월 17일자로 관보에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윤활유는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자동차용 휘발유와 등유, 경유, 중유 및 용제는 사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수수료의 징수대상자는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이며,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의뢰자가 납부하도록 했다.

검사수수료 징수요율은 윤활유의 경우, 국내생산품은 공장도가격의 1천분의 3(그리이스의 경우 1천분의 5), 수입품은 운임·보험료포함 수입가격의 1천분의3(그리이스의 경우 1천분의 5)이며, 휘발유, 등유, 경유 및 중유등 연료유의 경우, 정부가격고시상 국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공장도가격의 1천분의 0.5이다.

징수시기 및 방법은 ① 윤활유 및 의뢰시험은 품질검사 신청시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②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는 전분기의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수수료액을 산정하되, 기간중 석유제품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달의 판매실적을 일괄계산하여 산정하기로 했다.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에 대한 검사수수료의 징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정유업계는 석유제품의 검사수수료로 연간 약 17억원의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이다. 작년말 현재 이들 도시가스회사들의 부채비율은 평균 89%였다.

동자부는 이에 따라 이들 도시가스회사들의 차입금중 고리자금의 貨換에 1백84억1백만원, 도시가스연료를 종전의 LPG(액화석유가스)에서 LNG(액화천연가스)로 대체한데 따른 유휴설비에 대한 보상융자 1백26억원, 서울도시가스 노후배관 교체자금 貸換 46억4천4백만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융자조건은 연리 8%에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에너지문제 공동연구 추진
韓日에너지경제연구원 협약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7월 2일 日本에너지경제연구원과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등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들 두 기관은 앞으로 5년동안 에너지경제 및 기술정보의 교환과 전문가 교환방문, 세미나 개최, 각종 장단기에너지정책 및 전략연구와 에너지모델 개발등에 관해 협력하게 된다.

油公, 국산 기자재 사용 확대키로
국산화추진위원회에서

油公은 지난 6월15일 제5차 국산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울산공장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김정석 엔지니어링담당상무이사(동 위원회 위원장)를 비롯한 본사와 공장의 관계 임원 및 간부 등 위원 30여명이 참석하여 지난 85년 7월부터 금년 3월까지 조사된 국산화대상 기자재 및 관련업체 실태 조사보고서를 심의, 이중 37개 업체의 기자재 12개 품목을 추가선정, 사용키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83년 이래 금년 6월 현재까지 油公에서 사용중이거나 국산화하게 되는 국산 기자재는 압축기·펌프등의 기계장치를 비롯 배관, 계기, 토목 분야에서 모두 1백83개 업체의 1백60여개 품목에 달하게 된다.

油公은 공장의 정유, 서울화학 관련시설 및 저유소시설의 신설, 확장, 보수에 소요되는 기계장치, 기구, 구조물 등 각종 기자재를 국산화하기 위하여 지난 82년말 국산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83년부터 기존 국내 기자재의 선정·사용, 또는 국내 업체에 대한 국산 대체품목 개발지원 등의 방법으로 국산화를 본격 추진한 결과, 그동안 많은 기자재를 값비싼 외제 대신 국산으로 대체하여 외화절약 및 투자비 절감효과를 거두고, 국내 부품공업의 육성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7월 나프타공급가격 인상

工場渡 0.19%… ℓ당 114원 85전

대한석유협회는 석유화학제품의 기초원료인 나프타의 국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 7월 1일 국내나프타공급가격을 0.19% 인상, 이를 실수요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내나프타공급가격은 공장도가격기준으로 지난 6월의 ℓ당 104원21전에서 104원41전으로 20전이 오르고, 稅포함가격기준으로는 6월의 ℓ당 114원63전에서 114원85전으로 22전이 올랐다.

지난 6월중 국제나프타평균가격은 日本 C&F(운임포함조건)가격으로 톤당 180달러57센트를 기록했는데, 이는 5월의 177달러19센트보다 3달러38센트가 오른 것이다.

현재 국내나프타공급가격은 국제가격에 연동, 매달 日本 C&F가격의 전월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있다.

국내나프타공급가격의 변동추이는 다음과 같다.

국내 나프타가격 변동 추이

(단위 : 원/ℓ, $/t)

	국내가격(稅포함)	조정(%)	국제평균가격(日本 C &F 기준)
1985. 11	171.14	0.15	252.65
12	175.46	2.53	242.56
1986. 1	168.42	▲ 4.01	210.50
2	146.10	▲ 13.25	149.91
3	103.58	▲ 29.11	102.34
4	70.54	▲ 31.89	114.62
5	79.11	12.15	142.77
6	98.73	24.79	126.55
7	87.63	▲ 11.24	91.40
8	65.21	▲ 25.58	125.23
9	86.28	32.32	137.58
10	94.46	9.47	134.58
11	91.95	▲ 2.66	135.30
12	91.86	▲ 0.10	137.36
1987. 1	92.72	0.93	162.53
2	109.03	17.59	156.57
3	101.71	▲ 3.96	166.73
4	110.96	5.97	174,17
5	111.37	3.07	177.19
6	111.63	0.23	180.57
7	114.85	0.19	-

油公 윤활유 API 공인받아

5품목 25종 추가로

油公은 지난 6월 25일자로 「유니플로」등 5품목 25종의 자동차엔진 오일에 대하여 API(미국석유협회)서비스 분류등급 심볼마크 사용권을 추가획득하였다.

API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윤활유제품의 품질등급을 공인해주고, 그 등급을 표기한 심볼 마크를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해주고 있는데, 엄격한 품질규격 기준을 적용, 세계적인 공인기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油公은 지난 85년 8월에 1품목 4종의 윤활유제품에 대한 API품질공인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 다시 유니플로, 엑스트라 모터 오일, 플러스 모터 오일, XD-3, D-3 등 5품목 25종의 윤활유 제품에 대한 품질공인을 받아 이에 대한 API 심볼마크 사용권을 추가 획득하게 되었다. 특히 유니플로는 국내 최초로 현행 API분류등급상 최고급인 「SF/CC」급 심볼마크 사용권을 획득하였다.

油公, 경영학 계속 교육

경영지식 재충전 기회제공

油公은 과장급이상 및 근속년수 4년이상의 기간직 사원 66명과 흥국상사 및 유공가스 사원 5명을 포함, 모두 71명을 대상으로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2기로 나누어 각각 6일 과정의 87년도 경영학 계속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은 매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부설 경영연구소에 위탁하여, 이사 재무 판매 생산 등에 관한 경

영이론 및 이의 실무적용에 관한 강의와 국제정치등에 관한 교양강좌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경영지식을 재충전하는 한편, 경영이론과 실무경험의 교류에 의한 관리역량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油公, 아르바이트생 임시채용
보조업무 수행하며 현장경험

油公은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이번 여름방학에도 40명의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임시채용, 이들에게 산업체 현장 경험과 학비조달의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이들은 7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6주간 본사 및 공장의 필요부서에 배치되어 자료정리등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油公, 해상오염방제 훈련 실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油公 공장은 지난 7월 2일 공장 부두 제2충유장에서 부산지구 해양경찰대 및 울산지방 해운항만청과 합동으로 대규모 해양오염 방제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훈련은 제품적하작업 중이던 선박으로부터 B—C유의 해상누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상황을 가상하여 전개되었는데, 사고발생신고가 접수되자 즉시 자위소방대원이 현장에 긴급출동, 사고해상 주변에 6백미터의 기름차단막(Oil Fence)을 설치하여 유출유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를 회수하였다. 곧이어 부산해경 소속 방제선 3척 및 울산해운항만청 소속 방제선 1척이 각각 현장에 도착, 油公의 방제팀과 합동으로 누출된 기름을 제거하는 훈련을 1시간 30분동안 벌였다.

이날 훈련은, 근래 국내에서 해상 유류오염 사고가 자주 발생,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중시하여, 이러한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신속히 대처하여 피해를 극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油公 공장환경보전세미나 개최
환경보호협의회장 초빙

油公 공장은 지난 6월 28일 제15회 세계 안전보전일을 맞아 박창근 한국 환경보호협의회장을 강사로 초빙, 후생관 대강의실에서 1백6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보전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사 박회장은 우리나라도 근래 산성비가 내리고, 산성안개 발생빈도가 늘어나 환경보전 대책이 긴박한 상태에 와 있다고 말하고, 환경오염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없이 모두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동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오염물질 배출을 근원적으로 줄여가야 한다고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 모두의 인식 제고를 강조하였다.

油公 동우회 소식
수석회 · 테니스회

● 공장 수석동우회는 지난 6월 19일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김완식과장, 동력실) 선출에 이어 87, 88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 공장 테니스동우회(회장이상훈 동력기술과장)는 지난 6월 21일 회원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울산시내 제일테니스구장에서 제2회 회원친선 테니스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의 팀별 우승조는 다음과 같다.

○무궁화팀 우승=박주훈(실험실장)—김용우(정비부)조

○금성팀 우승=함영일(실험실)—고원택(석유화학생산부)조

○충무팀 우승=박상진—김재승(이상 석유화학생산부)조

○화랑팀 우승=양전근(실험실)—최병준(석유화학생산부)조

湖油, 무연휘발유 설명회 개최
주유소 사업의 방향제시도

湖油는 소매관리부 주관하에 7월 1일부터 판매개시되는 무연휘발유 제품 및 주유소 편익시설에 대한 안내·홍보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지난 6월 4일 서울 강남지역을 필두로 하여 전국 8개 도시에서 9회에 걸쳐 실시된 이 세미나에는 시작 첫날 250여명의 대리점, 주유소 관련자가 참석하는 등 대단한 관심을 불러 일으킨 가운데 성황을 이루었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 무연휘발유 제품 설명이외에 최근 업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주유소 편의시설 및 부대사업에 대한 방향도 아울러 제시하였는데 이 역시 주유업계의 일대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湖油, 대졸 신입사원 35명 채용
5주간 교육후 부서배치

湖油는 '87년도 상반기 대졸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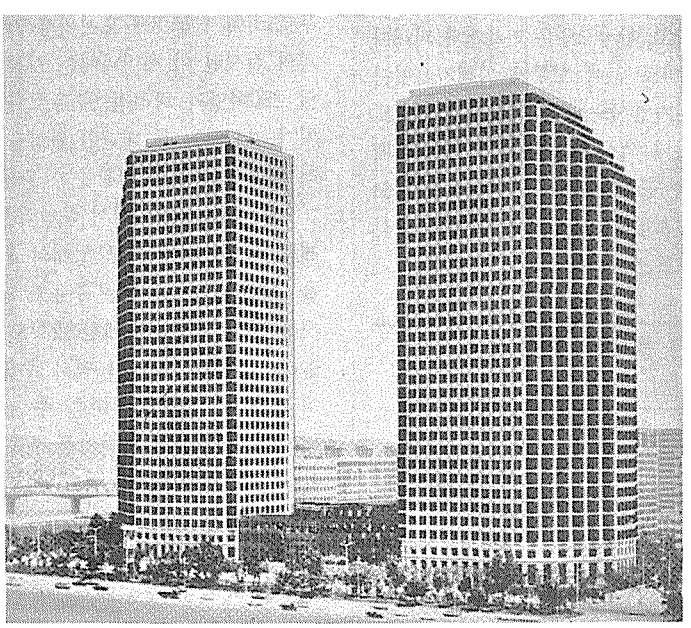
湖南精油 사무실 이전
여의도 럭키금성트윈타워로

湖南精油는 지난 7월 26일 본사사무실을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럭키금성트윈타워로 이전했다.

변경된 전화번호 및 층별부서배치는 다음과 같다.

1. 전　　화 : 787—□□□□(구내전화번호)
2. 이전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럭키금성트윈타워 서관 27—33층
3. 사 서 함 :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525호
4. FAX Tel : 787—6051, 785—5451
5. Telex(변경없음) : HONAM K23261, K27234
6. 층별부서 배치 :

27층 : 전산실, 연수실, 신정유업
28층 : 비상계획부, 호남탱카, 대한유조선
29층 : 영업부서
30층 : 재무부서, 주문과, PP영업부, 건설설계부서
31층 : 기획부서, 유화기획부서, 원유·국제부, 수급·수송부서, 감사실
32층 : 전무급 이상 임원실, 비서실, 임원비서실
33층 : 칼텍스주재 이사실, 업무부서



사원 35명을 채용 확정하였다.

이들은 6월 22일부터 5주간에 걸친 신입사원 입문연수를 받은 후 해당부서에 배치될 예정이다.

湖油, 신임과장 입문연수
신임관리자의 역할인식 제고

湖油는 신임관리자들에게 관리자로서의 조직내 역할인식과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87년도 신임과장 입문연수를 지난 6월 2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반도유스호스텔에서 실시하였다.

방계회사를 포함한 '87년 과장 진급자 및 '86년 과장 진급자중 신임과장 입문연수 미이수자 31명이 참가한 이번 연수는 주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간관계 개선, 관리의 기초 및 업무의 관리 그리고 리더쉽 함양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湖油, 동우회 소식
보울링반 · 등산반

● 본사 보울링반(반장 : 김상배 부장)은 지난 6월 3일 동호인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성보울링장에서 보울링 시합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동호인들은 그동안의 오랜 공백 기간에도 불구하고 경기 초반부터 안정된 경기를 하여 좋은 성적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상위권 선수들보다 중하위권 선수들이 월등한 성적을 보여줌으로써 본사 보울링반의 전체적인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2게임의 합계점수로 최우수 보울러를 뽑은 결과 송규헌(전산개발부) 사우가 365점으로 최우수 보

울러로 선정되었다.

● 본사 등산반(반장 : 황영길 부장)은 지난 6월 13일, 14일 양일간에 걸쳐 총 23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북 문경에 소재한 문경새재를 등반하였다.

湖油, '86업무개선 창안 결과 발표

총 317편 창안 응모중

湖油는 지난 6월 1일 '86년도 업무개선창안 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특히 이번에는 사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317편의 많은 창안이 응모되었다.

응모된 창안은 '실시가능성'을 중심으로 1차 심사를 거친후 '실효성'을 중심으로 최종 심사를 하였다. 최종 심사결과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입선 3편 그리고 장려상 136편이 각각 선정되었다.

한편, 최우수상 및 우수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0일 본사에서 허동수 부사장이 시상하였으며, 입선 이하 수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문)장이 시상하였다.

최종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제 목	창 안 자	
		소 속	성 명
최우수상 (1)	Check Valve Water Hammering 해결방안	정 비 부	손 중 덕
우 수 상 (2)	아스팔트 탱크스팀 응축수 라인개선	인천저유소	성 기 석
	Motor Scooter의 속도제한 장치 개발	정 비 부	변종성 / 주현문
입 선 (3)	LPG Splitter 운전방법 개선	생산기획 / 전산부	최 규 근
	Wood Fender 보호 방안	운 영 부(생산)	문 원 식
	No. 76 Cooling Tower 운전방법개선	정 비 부	김 경 남
장 려 상 (136)	주유기 및 충전기의 Sticker보관함 활용 외 135편	직 매 2 부	윤 광 진 외 135명

京仁 朴사장 연수교육 참가

기업대표 정화연수교육에

京仁에너지 朴聖根 사장(사진)은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간 사회정화위원회에서 주최한 기업체 대표자 정화연수 교육에 참가하였다.

京仁, 전산업무 개선위 설치

부서간 전산협조체제 활성화

京仁에너지는 전산실과 현업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전산업무의 개선 및 추가 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부의 과장, 대리급으로 전산업무 개선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IBM 교육센타 및 서울 컴퓨터학원에 전산위탁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매주 전산업무교육 및 현행 전산업무 문제점을 토의하고 개선업무의 개발 우선순위 결정, 부서간 전산관련 업무 조정등을 할 계획이다.

京仁, 분임조 경진대회 개최

최우수상에 정비부 분임조

京仁에너지 인천공장은 지난 6월 30일 품질관리 분임조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최우수상은 Fin Fan 냉각효율 향상에 대해 발표한 정비부 다람쥐 분임조가 수상하였으며, 우수상에는 8"F/O Line 히타 정비작업 방법개선을 발표한 정비부 등대분임조와 냉각탑 운전 및 화공약품 주입개선을 발표한 생산부 등대분임조가 수상하였다.

京仁, 아르바이트생 채용

44명, 학자금 마련에 도움

京仁에너지는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4주의 예정으로 아르바이트 학생 44명을 채용하였다. 이는 과외금지 조치 이후 학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부족을 해소하고, 산업현장에서의 근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관 고취 및 회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으로 작년 하계 기간중의 채용에 이어 3번째 실시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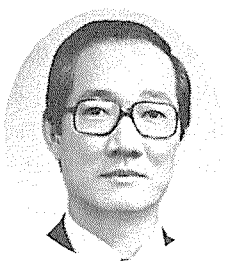
京仁, 대학생에 현장실습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京仁에너지는 7월 6일부터 8월 5일

까지 산학협동 계획에 따라 대학생의 공장 현장실습을 실시하였다. 홍익공전, 인하공전, 수원공전생 19명으로 당사 인천공장에서 각자 전공에 따라 현장 실습을 하였다.

雙龍, 창립 11주년 맞아
장기근속자 포상. 부서별 행사



雙龍精油는 지난 6월 28일 창립 1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10년 장기근속자에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이날 창립 11주년 기념식에서 李承源사장(사진)은 문정원 사우(본사 총무부)등 27명의 10년근속사원을 표창하고 기념패와 기념품을 수여했으며 「회사의 발전은 여러분의 값진 노고의 결과」임을 치하했다.

한편, 雙龍精油는 회사창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원들의 사기진작과 단합을 위하여 부서별로 자체 기념행사를 실시 했다.

雙龍, 이영희과장 장려상 수상
'경향에너지대상' 에너지절약부문

雙龍精油 溫山工場의 이영희 동력과장은 7월 7일 경향신문사 주최 제3회 '경향전기·에너지 대상'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영희과장은 이번 에너지대상 공모전에 '1차 수첨개질공정 대형압축기의 동력원 교체(터빈→모터)에 의한 수전전력 절약'이란 작품을 응모하여 에너지 절약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경향전기·에너지 대상은 경향신문사가 에너지부문의 기술혁신과 에너지절약 촉진을 위해 재정한 상으로 동력자원부, 한국전력등의 후원아래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 시상식은 최창락 동력자원부장관 등 관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雙龍, 환경보전 감사패 수상
세계환경의 날 맞아

雙龍精油는 지난6월 5일 부산환경지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부산환경청은 제15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온산·울산공단 입주업체 중 환경보전에 기여한 업체를 각 1사씩 선정,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온산공단에서는 쌍용정유가, 울산공단에서는 삼양사가 각각 수상했다.

雙龍, 농촌일손돕기
두차례 모내기 지원

雙龍精油 온산공장사우 26명은 지난 6월 12일부터 농촌일손돕기에 나서 공장인근 온산면 삼평리 농가에 모내기를 지원한데 이어 19일에는 2차로 울주군이 지정한 언양면에서 모내기를 실시했다.

雙龍, LPG탱크 개방검사
상태양호 판정

雙龍精油 온산공장은 6월 17일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LPG탱크 6기에 대한 개방검사수검을 모두 마쳤다.

LPG탱크 개방검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매 5년마다 실시토록 규정돼 있으며 이번검사는 상업가동이후 처음 받은 검사로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판명됐다.

極東, '87하계휴양소 설치 운영
충남 연포및 광안리 해수욕장에

極東石油는 종업원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해온 하계휴양소를 7월 17일부터 1개월동안 충남 연포 해수욕장에 설치하여 숙소 및 교통편의를 무료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근교에는 워커힐 맘모스 수영장, 수원 파도풀장, 청평 가든풀장의 이용편의도 제공하여 임직원 및 가족들이 건전하고 안락한 여름휴가를 보낼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공장에서는 7월 1일부터 2개월간 광안리 해수욕장에 하계휴양소를 설치 운영하며 특히 개장기간중에 직원 장기 자랑대회 및 제2회 극동장사씨름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極東 국가유공자 직원들 위로
보훈성금 기탁도

極東石油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국가 유공자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였으며, 부산공장에서는 김병관 공장장 이하 간부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로간담회를 열어 국가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또한 지난 6월 30일에는 보훈성금 2,000만원을 MBC에 기

탁하였다.

極東, 농촌일손돕기
40여명 모내기 지원

極東石油 부산공장 직원 40여명은 지난 6월 10일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맞아 일손이 모자라는 경남 양산군 기장읍 대변리 주민 고정일씨의 논 2,600평에 모내기 지원을 하였다.

〈석유협회 人事〉

□ 채용

▲金柱憲(기획부 조사과)
(7월 1일자)

□石油短信□

이·이戰을 둘러싼 和·戰의 두가지 움직임

UN安保理 5개 常任 理事國이 이·이戰 종식을 위한 결의안 마련에 거의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의안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고 있지 않으나 ① UN 사무국장의 休戰命令權, ② 페만연안 제국의 영토불가침조약 체결 ③ 전쟁 책임자를 조사하는 특별위원회의 설치 ④ 終戰後 UN의 戰後復奪 자금지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UN의 움직임은 이·이戰 발발 이후 가장 진지하게 펼쳐지는 休戰努力이라는점 이외에도 UN 5개 常任理事國 美·英·佛·中·蘇 5개국의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도 이의 귀추를 새삼 주시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休戰努力과는 달리 美海軍의 페만개입은 곧 작전개시를 알리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이란도 이미 Silkworm 미사일 實戰配置에 착수하고 있어 페만은 다시 일촉즉발의 위험을 알리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이 상반되는 두가지 움직임이 어떻게 귀결될 것이냐가 우리의 관심사항이 아닐 수가 없다.

먼저 UN 安保理의 休戰案을 살펴보면 현 전쟁당사국인 이란과 이라크의 雙務的 관계만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페만 연안국 전체의 상호불가침 조약을 제시함으로서 차제에 지역 安保槪念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당사국의 이해관계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라크의 입장에서 볼 때는 戰爭責任所在 규명과정에서 현 훗세인 정권이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겠지만 수차에 걸쳐 休戰을 제의해 왔던 점에 비추어 UN 休戰案에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란의 입장에서는 戰爭責任所在를 밝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侵略者 응징」을 요구하던 自國의 주장을 어느정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겠으나 休戰後 「調査委員會」의 활동에 과연 기대를 걸수 있느냐에는 부정적일 수 밖에 없으며 더우기 聖戰에서의 完勝을 목표로 하고, 또 이를 內政的 團合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판국에 선듯 休戰案에 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번 休戰案도 결실을 보기는 어렵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의 休戰 움직임은 특히 이란에게 적지않은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그것은 5개 常任理事國이 休戰案 합의와 동시에 武器輸出을 완전히 통제하는 경우 전쟁수행에 있어서 심각한 제약을 느끼는 것은 이란 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때 이번 休戰案은 궁극적인 休戰到達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우선 「전쟁을 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를 걸어볼만 하다 하겠다.

이러한 脈絡에서 볼 때 美國의 페만개입 확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一見 이것은 美國이 늘 그래왔듯이 힘을 배경으로 한 평화협상의 강요라는 측면도 갖고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美國의 입장에서 볼때 '86년 이후 격증하는 對外 石油依存度를 감안하여 中東地域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하거나 이 지역에 대한 美國의 깊은 관심을 확고히 보여줄 필요를 느낄 것이며 바로 지금이 그 기회로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美國의 페만 군사개입은 이미 정해진 길이며 군사적 충돌 위험성을 안고서라도 유조선保護作戰은 강행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행동의 결정권은 다시 이란에게로 넘어간다. 美軍保護下의 美國籍 쿠웨이트 油槽船에 대해 공격을 감행할 것인가 아니면 休戰案에 동의할 것이냐가 이란에게 주어진 선택이다. 페만에서의 美軍作戰을 바라만 보면서 反美口號만을 외치고 있는 것은 어딘가 설득력을 상실한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